



정민규/정수정 선교사

TEL: +55-11-9 1256-2087 E-mail: j_m_kyu@hotmail.com

주소 : R. Talmud Thora, 238 APTO 42 Bom Retiro, Sao Paulo-SP

CEP : 01126-020

GP선교회 : 서울 송파구 문정동 77-3번지 TEL: 02-443-0883

후원계좌 : 하나은행 990 090819 170 정민규, 정수정

2022년 03월

“그리스도의 계절! 나의 소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가정과 후원 성도들께 브라질에서 문안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5번째 정착은 제가 살아온 중에 마음으로도 육체로나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려움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에 놀라움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정착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일들과 너무 많은 은혜가 있어서 편지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과 가구 등을 잘 마련하였고, 아내와 아이들도 2월 17일에 브라질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알아보았지만, 저희 상파울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파울에 정착을 하게 된 배경에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브라질에 도착하고 2주 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전반기 혹은 1년 정도는 학교에 다니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무사히 학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브라질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브라질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는 알 수 없

지만, 인플레이션 현상의 지속으로 물가가 4년 전보다 2.5배는 높아진 듯합니다. 때문인지 많은 목회자와 한인들이 브라질을 떠나 5만명이던 한인은 이제 15000명 남짓이며,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6~7 곳의 교회가 담당 교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는 목회자가 없는 한인교회 두 곳에서 설교로 주일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정착에 남은 부분은 아내와 태연이와 저의 영주권 신청서류 제출일이 5월 25일에 있으며 이후 브라질 운전면허증 취득, 차량 구매의 일들이 남았습니다. 차량구매는 여권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소 영주권을 신청한 번호가 있어야 된다고 하여서 아직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도부탁 드리는 것은,

첫째. 브라질에는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현지인들도 변호사에게 맡길 정도로 유독 어렵습니다. 영주권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서류준비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둘째. 브라질의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주택비, 학비, 공과금 등도 많이 올랐습니다. 집과 학교가 상파울로 시에서도 저렴한 편에 속하는 곳이지만 지금의 재정으로는 벅차다 느껴집니다. 또한 영주권과 비자연장 관련에 드는 비용과 영주권 신청에 소요되는 재정도 잘 채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가족이 포르투갈어를 다시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와 브라질 환경과 문화적응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넷째.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으실지 참으로 기대가 큼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며, 가족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야 하는 모든 사람들과 만남들에 지혜가 있으며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브라질 땅에서 정민규/정수정 선교사(소연/창연/태연)

연락처 : j_m_kyu@hotmail.com 또는 <http://www.facebook.com/mingyu.jeong2>